

스키장 안전요원, 맛집 블로거 등 새 직업 부상

문화관광 소비가 나날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직업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른새벽 태산의 관광객센터에서 26세 청년 왕양(王阳)은 등산가방에 부라부라 짐을 챙긴다. 그의 직업은 '등산가이드'로 일대일 또는 소규모 그룹을 맡는다. 최적의 등산 루트를 짜고 사진 촬영, 력사 설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가 전통적인 가이드와 차별화되는 이유다.

'새 중국 최초의 고산 스키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길림성 통화시 만봉(万峰) 통화스키장에서 산악 운영 총감독으로 근무중인 우위(于伟)는 스키장 안전요원 관련 국가 직업 기준 마련에 한창이다.

국가체육총국 통계에 따르면 2024년-2025년 방설 시즌에 스키장을 찾은 방문객은 2억 3,400만명(연인원)에 달했다. 우위는 "현재 각 스키장에 지급한 것은 바로 안전요원"이라고 강조했다. 고산, 점프대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생기면서 마니아층의 실력도 다양해 부상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길림성 통화시 만봉통화스키리조트 / 신화넷

지난해부터 그는 국가체육총국에 스카우트되어 스키장 순찰대원 국가 직업표준 제정팀을 이끌고 있다.

연변 사나이 송지강(宋智强)은 맛집 탐방 블로거다. 1인 방송 계정을 운영한 10년간 그가 업로드한 피드는 2,000개에 육박, 루적 5억부의 기록을 세웠다. 틱톡(抖音)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핫플레이스 탐

방 인플루언서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이 얻는 수익은 1,333억원 이상에 이르고 약 144만명의 중소상공인이 그 빛을 봤다. 이들이 중소도시 일자리 창출을 이끈 주력군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다.

성도 천부(天府) 국제에너지메이선 타운, '90 후' 문화창의제품 기획운영사 주주(曾舟)는 삼성퇴 청동종목가

면(青铜纵目面具) 디자인의 블라인드 박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이 제품을 통해 놀이방식으로 고족(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지난해 삼성퇴 관련 문화창의제품 판매액은 1억 9,000만원을 기록, 문화창의산업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직업군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9년-2024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여섯차례에 걸쳐 총 93개의 새로운 직업을 발표, 직업 훈련과 산업 수요 매칭을 촉진했다. 한편 제9차 전국 근로자집단 현황 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가 약 4억 200만명에 달하는데 신규 일자리 형태의 근로자가 8,400만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중국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부교수 주엄숙(周广肃)은 "새로운 직업은 일자리 성장점일 뿐만 아니라 소비 업그레이드의 '운도계'"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새로운 산업 및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을 뒷받침해 신질생산력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신화넷

신강의 뜨거운 태양광, 북경의 밤 밝혀

지난달 신강위글자치구에서 북경으로 보내는 1,200만키로와트시 규모의 록색전력 거래가 모두 완료됐다고 수도전력거래센터가 밝혔다.

이는 '신강에서 낮에 생산된 록색전력을 북경에서 부하가 발생하는 밤시간에 사용'하는 새로운 시장 거래 모델이다.

이번에 거래된 록색전력은 주로 신강 알타이(阿勒泰), 하미(哈密) 등 지역의 태양광발전 기업이 생산한 것으로 특고압 직류 송전망을 통해 약 3,000킬로미터 떨어진 북경으로 전송, 주로 국가대극원·국가도시관·수도박물관 등의 록색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됐다.

이번 전력 거래 모델은 일조 시차를 리용해 신강의 오후 태양광 발전 피크 시간대와 북경의 저녁 전력 사용 피크 시간대를 정밀하게 련결했다. 이는 신강의 신에너지 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쌍탄'(双碳) 전략의 시행과 북경의 전력 공급 보장 및 에너지 저탄소 전환에 새 동력을 불어넣었다.

수도전력거래센터 거래원 최동

군(崔东君)은 "태양광, 풍력 등 신에너지가 발전 능력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혁신적인 록색전력 거래 방식을 고안해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경으로 류입되는 록색전력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조량이 풍부한 시간대에 신강의 태양광 소비를 효과적으로 늘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올 들어 수도전력거래센터는 성(省)간 록색전력 가격경쟁 거래를 추진해왔다. 이달초 기준 신강에서 북경으로 송전된 록색전력 거래량은 이미 3,200만키로와트시를 넘어섰다.

최근 수년간 북경시는 외부 조달 록색전력 규모를 꾸준히 늘여온 결과 록색전력 공급이 더욱 안정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북경시의 외부 조달 록색전력 소비량은 2016년 98억키로와트시에서 지난해 350억키로와트시로 증가했다. 북경시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록색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의 12%에서 2024년의 29%로 상승했다. 올해 북경시의 외부 조달 록색전력 규모는 400억키로와트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신화넷

내몽골, 신에너지 전력 시스템 건설에 박차

충전 전력량 전년 대비 420% '쨍쨍'

내몽골자치구가 신형 에너지스토리지(新型储能) 확대를 통해 신에너지 위주의 전력 시스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몽골자치구에너지국에 따르면 올 1분기 자치구 전역 신형 에너지스토리지의 충전 전력량은 루적 7억 3,000만키로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420% 급증하고 방전 전력량은 446% 늘어난 6억 3,000만키로와트시로 집계됐다.

내몽골자치구에너지국 관계자는 신형 에너지스토리지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관련 발전 특별행동을 전개함에 따라 자치구내 신형 에너지스토리지 설비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내몽골 신규 신형 에너지스토리지 설비용량은 708만키로와트로 전년 대비 3.4배 증가했다. 지금까지 내몽골 신형 에너지스토리지의 루적 설비용량은 1,086만키로와트에 달한다.

신형 에너지스토리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내몽골은 신형 에너지스토

리지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독립된 신형 에너지스토리지 발전소 프로젝트 실시제치 등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신형 에너지스토리지의 고효율적인 제어 및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내몽골 신형 에너지스토리지는 전력 피크 시간대 전기료, 전력시장 거래, 방전량 보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올 1월-4월 실린골맹(锡林郭勒盟) 소니드우(苏尼特右) 기에 위치한 백리격(百利格) 에너지스토리

지발전소의 전력망에 련결된 전력량은 4,035만키로와트시로 종합리용률이 94%에 달했다. 이는 116회의 충전·방전이 가능한 규모로 기본적으로 1일 1회 충전·방전된 셈이다. 아울러 해당 발전소는 합리적인 계획운행을 통해 전력 현물시장의 '저가 매수·고가 매도'에 참여했다. 이를 통한 충전·방전 평균 차액은 1키로와트시당 0.35원으로 광호한 경제 수익을 실현했다.

/ 신화넷

외식업계, 로동절 연휴 문전성시…

'관광+먹거리' 효과 톡톡

올해 로동절 연휴 기간 국내 외식 소비가 확연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호텔협회가 전국 중점 모니터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중 53.4%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5%를 넘었고 45.2%의 업체 고객수가 평균 1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도시의 통계도 눈에 띈다. 북경의 경우 매장내 단체식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1% 증가했으며 온라인 배달 매출은 3.8% 확대됐다. 상해의 중급 호텔 예약량은 30% 이상 증가했으며 외식 소비쿠폰으로 매장 매출이 크게 늘었다.

회귀 프랜차이즈 사부샤부(呷哺呷哺)의 전체 매출은 18.85% 증가했다. 서행(瑞幸)커피는 제품 개발, 매장 확장 등을 통해 매출을 28.5% 견인했다. 항주 루외루(楼外楼) 본점은 매일 4,000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이곳의 대표 메뉴인 '서호조어'(西湖醋鱼) 판매로 하루 1,000마리의 생선이 소비됐다. 동파육도 매일 2,000피스 이상 팔렸다.

외지 관광객을 통한 외식 소비도 크게 늘었다. 메이뽕(美团)에 따르면 지역 특색 요리를 판매하는 음식점의 경우 주문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5% 넘게 급증했다. 성도 소재 식당의 온라인 주문량은 77% 이상 증가했으며 상해 소재 식당의 매출은 37.1% 늘었다.

"이러한 통계는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바탕으로 한 '미식 효과'를 보



5월 3일, 운남성 노강리수족자치주 공산(贡山) 현의 한 마을에서 식사중인 사람들. / 신화넷

여준다. '지역의 맛'이 현지 소비를 이끄는 효과가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호텔협회 진신화(陈新华) 회장의 말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소비 업그레이드와 개인별 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취향이 단일 매장 소비에서 식사, 숙박, 즐길거리가 융합된 복합형 체험으로 바뀌고 있다.

로동절 연휴 기간 중국 전역에서 열린 무적 페스티벌, 콘서트장 주변 식당, 숙박시설, 즐길거리 등이 통합된 서비스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0% 폭증했다. 광주의 일부 호텔은 가족 숙박권과 관광지 입장권, 식사 바우처 등이 결합된 가족모임 패키지를 출시했으며 이외 여러 업체도 소비자 수요 만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내놓았다.

한편 연휴전 중국호텔협회는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발표, 이를 통해 전국 료식 및 숙박 업계의 기본 소양 조치 보급률이 9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화넷



운남성 진웅현

주민들의 '집앞 취업' 추진

운남성 소통시 진웅(镇雄) 현은 오몽산(乌蒙山)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다. 최근 몇년간 현지 정부는 '집앞 작업장' 건설을 민생복지 개선의 중점 사업으로 삼고 '산업단지+작업장' 플랫폼 구축, 로동집약형 기업 육성, 취업 경로 확충 등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집앞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5월 12일, 이룩(以勒)오금첨단산업단지 생산작업장에서 근무 중인 진웅현의 한 주민.

/ 신화넷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中华有福
助人是福

图说
我们的
价值观

天津大郑剪纸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